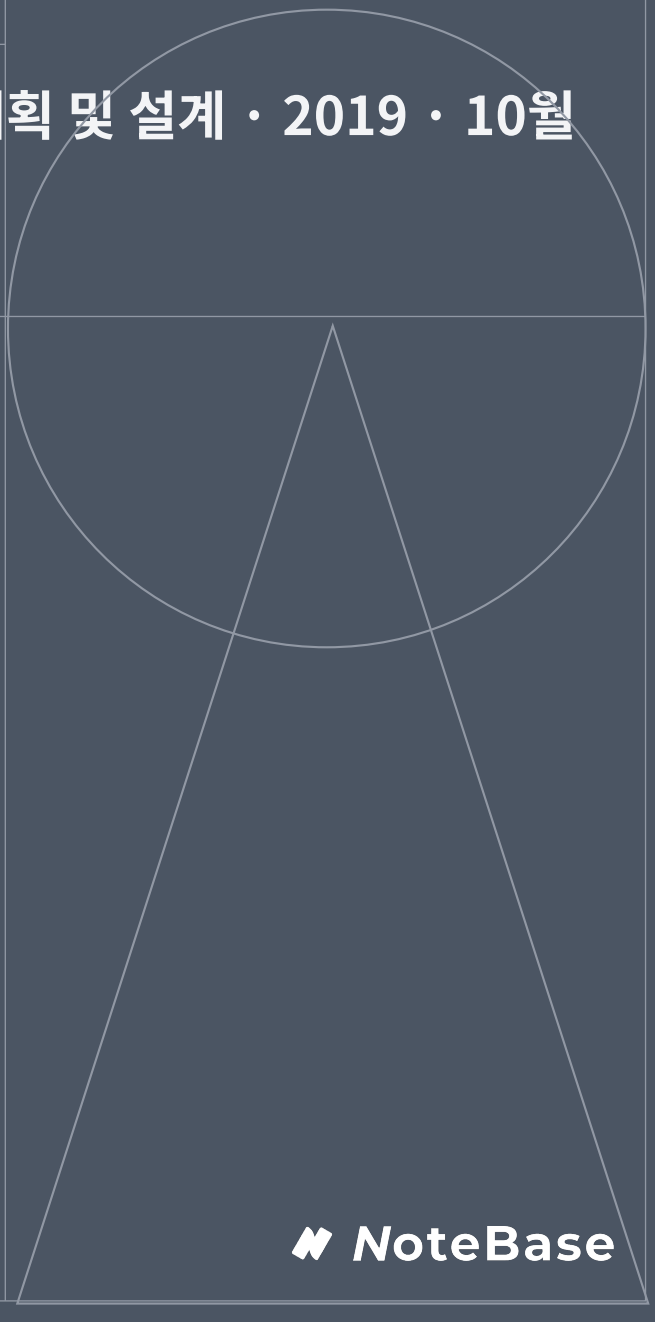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계획 및 설계 · 2019 · 10월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계획 및 설계 · 2019 · 10월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계획 및 설계 · 2019 · 10월

문 1. 알베도(albedo)가 가장 높은 것은?

① 검은 흙
② 바다
③ 산림
④ 갓 내린 눈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지표면 종류별 알베도 크기 비교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알베도는 표면이 받는 태양복사 중 반사하는 비율이다.
밝고 흰 표면일수록 알베도가 높고, 어둡거나 빛을 잘 흡수하는 표면일수록 알베도가 낮다.
갓 내린 눈은 매우 밝아 알베도가 매우 높고, 바다·산림·검은 흙은 그보다 낮다.

선지별 해설

① X: 검은 흙은 색이 어둡고 태양복사를 많이 흡수하므로 알베도가 낮다. 틀린 표현은 '가장 높은'이다.
올바르게는 '검은 흙은 보기 중 알베도가 매우 낮은 편이다.'이다.
② X: 바다는 수면 반사가 보일 때가 있어도 일반적으로 복사 흡수가 커서 알베도가 높지 않다. 틀린 표현은 '가장 높은'이다. 올바르게는 '바다는 갓 내린 눈보다 알베도가 낮다.'이다.
③ X: 산림은 수관이 어둡고 복잡하여 빛을 많이 흡수하므로 알베도가 낮거나 중간 수준이다. 틀린 표현은 '가장 높은'이다. 올바르게는 '산림은 갓 내린 눈보다 알베도가 낮다.'이다.
④ O: 갓 내린 눈은 흰색 표면으로 입사 복사를 매우 많이 반사하므로 보기 중 알베도가 가장 높다.

오답 포인트

수면이 반짝여 바다가 가장 밝아 보인다고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시험에서는 일반적인 표면 반사율을 묻기 때문에 흰색의 갓 내린 눈이 가장 높고, 검은 흙·산림·바다는 모두 그보다 낮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알베도 문제는 표면의 색과 반사 성질을 먼저 본다. 흰색·밝은 표면이면 높고, 검거나 식생이 우거지거나 물처럼 복사를 잘 흡수하는 표면이면 낮다고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알베도는 흰 눈이 높고 검은 흙이 낮다.

NoteBase

문 2. 조경계획설계 과정 중 기본구상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프로젝트를 위한 자료수집 분석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② 추상적인 계획설계 목표가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공간 형태로 전이되는 중간과정이다.

③ 공간의 배치 및 규모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며 토지 이용, 동선, 식재 등 부문별계획으로 나누어진다.

④ 서술적으로도 표현할 수 있으나 주로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여 의뢰인의 이해를 높이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경계획설계 과정에서 기본구상단계와 기본계획단계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기본구상은 조사·분석에서 드러난 문제를 바탕으로 해결 개념과 공간의 큰 틀을 잡는 단계이다. 주로 버블 다이어그램이나 개념도로 표현되며, 추상적 목표를 공간적 방향으로 전환한다.
기본계획은 기본구상에서 잡은 큰 틀을 토지이용, 동선, 식재, 시설 배치 등 부문별 계획으로 구체화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공간의 배치와 규모가 한층 구체적으로 정리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자료수집·분석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설계 개념으로 부각하고 그 해결 방향을 제시하는 일은 기본구상의 핵심이다. 기본구상은 분석 결과를 공간적 아이디어로 바꾸는 단계이므로 옳다.

② O
기본구상은 추상적인 목표와 요구를 실제 공간 개념으로 옮기는 중간 단계이다. 아직 상세 도면 단계는 아니지만 물리적 공간 형태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므로 옳다.

③ X
틀린 부분은 "공간의 배치 및 규모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며 토지이용, 동선, 식재 등 부분별계획으로 나누어진다"는 표현이다. 이는 기본구상이 아니라 기본계획 단계의 설명이다. 기본구상은 큰 방향과 개념을 제시하는 단계이고, 토지이용계획·동선계획·식재계획처럼 부문별로 구체화하는 것은 기본계획에 해당한다.

④ O
기본구상은 서술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으나, 의도를 빠르게 전달하려면 다이어그램 표현이 효과적이다. 의뢰인이 공간 관계와 개념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우므로 옳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3번은 기본구상과 기본계획의 경계를 섞어 놓은 선지이다. "토지이용, 동선, 식재 등 부문별 계획"이라는 문구가 보이면 이미 개념 제시를 넘어 구체화 단계로 들어간 것이므로 기본계획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본구상은 문제 해결 개념과 공간의 큰 틀을 다이어그램으로 제시하는 단계로 판단한다. 반면 토지이용, 동선, 식재, 시설 배치처럼 항목별 계획과 구체적 규모 조정이 나오면 기본계획 단계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기본구상은 큰 틀과 개념, 기본계획은 부문별 구체화이다.

NoteBase

문 3. 환경심리와 조경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에드워드 홀(Edward T. Hall)이 주장한 개인적 거리(personal distance)는 친한 친구 혹은 잘 아는 사람들 간의 일상적 대화에서 유지되는 간격이다.

② 아파트는 현대도시 주거의 문제를 자주 드러내며 물리적 주거밀도는 매우 높으나, 사회적 밀도는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③ 영역(territory)은 사람이 움직임에 따라 이동하는 공간이지만, 개인적 공간(personal space)은 고정되고 개인화된 특정 공간을 의미한다.

④ 혼잡을 느끼는 요인에는 개인, 상황, 사회적 조건 등이 있으며 밀도가 높다고 하여 반드시 혼잡하다고 느끼는 것은 아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환경심리의 핵심 개념인 개인적 거리, 영역, 개인적 공간, 밀도와 혼잡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개인적 거리(personal distance)는 친숙한 사람과의 일상적 대화에서 유지되는 대인 간격이다.
영역(territory)은 개인이나 집단이 점유하고 방어하려는 비교적 고정된 공간이다.
개인적 공간(personal space)은 사람을 둘러싸며 함께 이동하는 심리적 공간이다.
밀도는 사람 수와 공간의 객관적 관계이고, 혼잡은 그 밀도를 어떻게 주관적으로 느끼는가의 문제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에드워드 홀의 개인적 거리는 친한 친구나 잘 아는 사람과의 대화에서 유지되는 거리 범위를 뜻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② O: 아파트는 물리적으로는 고밀도 주거형태이지만, 익명성과 폐쇄성 때문에 사회적 교류 밀도는 낮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③ X: 틀린 부분은 "영역은 사람이 움직임에 따라 이동하는 공간"과 "개인적 공간은 고정되고 개인화된 특정 공간"이라는 표현이다. 실제로는 영역이 고정적이고 개인화된 공간이며, 개인적 공간이 사람을 따라 이동하는 심리적 공간이다.
④ O: 혼잡은 단순한 밀도 자체가 아니라 개인 특성, 상황, 사회적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주관적 경험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영역과 개인적 공간은 모두 자기와 관련된 공간이라는 점 때문에 혼동되기 쉽다. 이 문항은 두 개념의 공통점이 아니라 "고정성"과 "이동성"을 뒤바꿔 놓은 ③번 표현을 잡아내는지가 핵심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간 개념 비교 문제에서는 먼저 그 공간이 사람과 함께 움직이는지, 아니면 특정 장소에 고정되어 점유되는지를 구분하면 된다. 이어서 밀도는 객관적 수치, 혼잡은 주관적 느낌이라는 축으로 판단하면 선지 정리가 쉬워진다.

암기 포인트

영역은 자리, 개인적 공간은 거품, 밀도는 수치, 혼잡은 느낌이다.

NoteBase

문 4. 레크리에이션과 조경계획에 관하여 S.Gold가 분류한 접근방법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활동접근법 : 일반 대중이 여가 시간에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가를 상세히 파악하여 그들의 구체적인 행동 패턴에 맞추어 계획하는 방법

② 자원접근법 : 물리적 자원 혹은 자연자원이 레크리에이션의 유형과 양을 결정하는 방법

③ 경제접근법 : 어느 지역사회의 경제적 기반이나 예산 규모가 레크리에이션의 총량, 유형, 입지를 결정하는 방법

④ 종합접근법 : 레크리에이션의 접근방법 중 긍정적 측면만을 취하여 이용자의 요구와 자원의 활용가능성을 조화시키도록 접근하는 방법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S. Gold가 분류한 레크리에이션 계획 접근방법의 핵심 개념, 특히 활동접근법과 행태접근법의 차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활동접근법은 사람들이 어떤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얼마나 선호하고 참여하는지를 중심으로 시설과 공간 수요를 계획하는 접근이다. 결정 차이축은 활동 유형과 참여율이며, 키워드는 활동 수요이다.
자원접근법은 물리적 자원이나 자연자원의 성격이 가능한 레크리에이션 유형과 규모를 좌우하는 접근이다. 결정 차이축은 자원 조건이며, 키워드는 자원 공급이다.
경제접근법은 지역의 경제적 기반이나 예산 규모가 레크리에이션의 총량, 유형, 입지를 좌우한다고 보는 접근이다. 결정 차이축은 경제 여건이며, 키워드는 예산과 투자이다.
행태접근법은 이용자가 여가 시간에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와 같은 구체적 행동 패턴에 맞추어 계획하는 접근이다. 결정 차이축은 이용 행태이며, 키워드는 행동 패턴이다.
종합접근법은 여러 접근법의 장점을 함께 반영하여 이용자 요구와 자원 활용 가능성을 조화시키는 접근이다. 결정 차이축은 통합 판단이며, 키워드는 조화와 통합이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계획 및 설계 · 2019 · 10월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활동접근법이라고 한 표현이다. 선지의 내용인 '일반 대중이 여가 시간에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가를 상세히 파악하여 그들의 구체적인 행동 패턴에 맞추어 계획'은 활동접근법이 아니라 행태접근법의 설명이다. 활동접근법은 행동 패턴 자체보다 선호 활동의 유형과 참여율을 중심으로 계획한다.

② O
자원접근법은 물리적 자원 또는 자연자원이 레크리에이션의 유형과 양을 결정한다는 설명이 맞다. 어떤 자원이 존재하는지가 가능한 활동과 수용 규모를 좌우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③ O
경제접근법은 지역사회의 경제적 기반이나 예산 규모가 레크리에이션의 총량, 유형, 입지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비용, 투자 가능성, 예산 규모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설명이 타당하다.

④ O
종합접근법은 각 접근방법의 장점을 취해 이용자의 요구와 자원의 활용 가능성을 조화시키는 방법이다. 여러 접근법을 단일 기준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통합적으로 본다는 설명이 맞다.

오답 포인트

①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가', '구체적인 행동 패턴'이라는 표현 때문에 행태접근법을 설명하고 있다. 활동접근법과 행태접근법은 모두 이용자 측면을 본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여 혼동하기 쉽지만, 활동접근법은 활동 유형과 참여율, 행태접근법은 실제 행동 패턴과 이용 행태가 기준이라는 점에서 갈린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활동의 종류와 참여율이 나오면 활동접근법으로,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같은 실제 이용 행태가 나오면 행태접근법으로 판단한다. 자원이 기준이면 자원접근법, 예산과 경제 기반이 기준이면 경제접근법, 여러 접근의 장점 통합이면 종합접근법으로 정리된다.

암기 포인트

활동접근법은 활동 수요, 행태접근법은 행동 패턴, 자원접근법은 자원 조건, 경제접근법은 예산 규모, 종합접근법은 통합 조화이다.

NoteBase

문 5. 설계연구를 위한 자료수집방법 중에서 물리적 흔적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동적인 행태를 관찰하여 일정 순서에 따라 일어나는 연속적 행태를 연구하는 데 유용하다.

② 관찰자의 출현에 의해 연구의 대상이 되는 인간행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③ 일반적으로 조사를 위한 비용이 많이 들고 중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얻는 데 많은 한계가 있다.

④ 행위의 결과로 남은 부산물을 조사하며 '누적효과'를 고려하여 행태연구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설계연구의 자료수집방법 중 물리적 흔적 조사의 정의와 직접 관찰법의 특징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물리적 흔적 조사는 이용행위가 끝난 뒤 현장에 남은 마모, 훼손, 쓰레기, 퇴적 같은 부산물을 조사하여 행태를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이다. 직접 관찰법은 연구자가 현장에서 사람의 행동을 직접 보며 기록하는 방법이므로 관찰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1번 X: 틀린 표현은 '동적인 행태를 관찰하여 일정 순서에 따라 일어나는 연속적 행태를 연구'이다. 이는 사람의 행동을 직접 따라가며 보는 관찰법의 설명이다. 물리적 흔적 조사는 동적 행태를 실시간 관찰하는 방법이 아니라 행위 후에 남은 흔적을 통해 간접적으로 분석한다.
2번 X: 틀린 표현은 '관찰자의 출현에 의해 연구의 대상이 되는 인간행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이다. 이는 연구자의 존재가 피관찰자의 행동을 바꾸는 직접 관찰법의 한계이다. 물리적 흔적 조사는 사람을 눈앞에서 관찰하지 않으므로 이런 관찰자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다.
3번 X: 틀린 표현은 '비용이 많이 들고 중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얻는 데 많은 한계가 있다'이다. 물리적 흔적 조사는 기존 현장에 남은 흔적을 활용하므로 비교적 비간섭적으로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계는 비용 과다가 아니라 흔적만으로 행위의 원인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4번 O: 물리적 흔적 조사는 행위의 결과로 남은 부산물을 조사하는 방법이라는 설명이 맞다. 또한 흔적은 시간이 지나며 누적되거나 중첩될 수 있으므로 누적효과를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1번과 2번은 모두 '관찰'이라는 말 때문에 그럴듯해 보이지만, 둘 다 연구자가 행동을 직접 보는 관찰법의 특징이다. 물리적 흔적 조사는 사람의 현재 행동이 아니라 행동 뒤에 남은 결과물을 본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연구자가 현장에서 행동을 본다, 관찰자의 존재가 영향을 준다, 연속적 행태를 추적한다는 표현이 나오면 직접 관찰법으로 본다. 반대로 마모, 훼손, 쓰레기, 이용 흔적, 부산물, 누적효과가 나오면 물리적 흔적 조사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물리적 흔적 조사는 사람을 보는 방법이 아니라 사람이 남긴 흔적을 보는 방법이다.

NoteBase

문 6. 이용후평가(Post occupancy evaluation)에서 옥외 공간을 대상으로 한 설계평가 시 프리드만(Friedmann)이 고려한 네 가지 항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물리적 · 생태적 환경, 기능적 환경, 이용자, 설계관련행위

② 기술적 환경, 기능적 환경, 행태적 환경, 설계관련행위

③ 물리적 · 생태적 환경, 기능적 환경, 행태적 환경, 설계관련행위

④ 물리적 · 사회적 환경, 이용자, 주변환경, 설계관련행위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프리드만의 옥외공간 이용후평가 항목을 다른 평가유형의 항목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정리

프리드만은 옥외공간의 이용후평가에서 공간 자체만이 아니라 그 공간을 쓰는 사람, 주변 맥락, 설계와 관련된 행위까지 함께 본다.
로비노비츠 평가는 주로 건축물을 대상으로 기술적 환경, 기능적 환경, 행태적 환경을 본다는 점에서 프리드만의 옥외공간 평가와 구별된다.

선지별 해설

1번: X. "물리적·생태적 환경, 기능적 환경"이라고 한 부분이 틀리다. 프리드만의 옥외공간 POE는 기능적 환경을 기본 축으로 제시하지 않고, 물리적·사회적 환경, 이용자, 주변환경, 설계관련행위를 함께 본다.
2번: X. "기술적 환경, 기능적 환경, 행태적 환경"이라는 구성 자체가 틀리다. 이 조합은 건축물 중심의 로비노비츠 평가항목에 가깝고 프리드만의 옥외공간 평가틀이 아니다.
3번: X. "물리적·생태적 환경, 기능적 환경, 행태적 환경"이라는 앞부분이 틀리다. 설계관련행위만 일부 비슷해 보여도 전체 항목 구성이 프리드만 체계가 아니라 다른 평가항목이 섞인 것이다.
4번: O. 물리적·사회적 환경, 이용자, 주변환경, 설계관련행위는 프리드만이 옥외공간 이용후평가에서 고려한 네 항목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프리드만과 로비노비츠의 평가항목을 섞으면 틀리기 쉽다. 특히 "기술적·기능적·행태적 환경"은 건축물 중심 평가에서 자주 보이는 표현이고, 프리드만은 옥외공간의 이용자와 주변 맥락을 함께 본다는 점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프리드만 문제가 나오면 옥외공간을 네 축으로 정리한다. 공간 자체의 물리적·사회적 환경, 그 공간을 쓰는 이용자, 주변환경의 맥락, 설계관련행위가 보이면 프리드만으로 판단할 수 있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프리드만 = 옥외공간의 환경, 이용자, 주변맥락, 설계행위의 4축이다.

NoteBase

문 7. 식생환경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사유형으로 방형구 조사법, 접선법, 대상 접선법, 거리법 등이 있다.

② 녹지자연도는 식물군락 특성 및 동물 서식지로서의 환경의 질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③ 피도는 조사구 내 각 식물종이 차지하는 수관투영 면적 비율을 상층, 중층, 하층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④ 군집의 종다양도를 표현하는 지표로는 중요도 (important value), 우점도(dominance), Shannon의 다양도 지수 등이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식생환경 조사에서 쓰는 대표 지표와 조사 개념을 구분하는 문제이며, 특히 녹지자연도가 식생의 자연성을 보는 지표인지 동물 서식지까지 포함한 종합 서식환경 평가지인지를 가려내는지가 핵심이다.

핵심 개념

녹지자연도는 토지의 식생 상태와 인위적 교란 정도를 바탕으로 녹지의 자연성을 등급화한 개념이다.
피도는 조사구에서 각 식물종이 차지하는 수관투영면적의 비율이다.
군집 평가는 우점 양상과 종다양성을 함께 보며, 우점성은 중요도나 우점도로, 다양성은 Shannon의 다양도 지수 등으로 파악한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계획 및 설계 · 2019 · 10월

선지별 해설

① O
방형구 조사법, 접선법, 대상 접선법, 거리법은 식생 조사에서 실제로 쓰이는 대표적인 조사 유형이다. 표본구를 두는지, 선과의 접촉을 보는지, 개체 간 거리 관계를 이용하는지에 따라 조사법이 구분된다.

② X
틀린 부분은 "동물 서식지로서의 환경의 질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표현이다. 녹지자연도는 기본적으로 식생의 자연성, 식물군락의 상태, 인위적 교란 정도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지표이다. 올바르게는 "녹지자연도는 식생의 자연성과 교란 정도를 반영하여 녹지 상태를 등급화한다"가 된다.

③ O
피도는 조사구 안에서 식물종이 덮는 정도를 수관투영면적 비율로 파악하는 개념이다. 식생 조사는 상층, 중층, 하층 등 층위를 구분하여 각 층의 피도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④ O
중요도와 우점도는 군집 내에서 어떤 종이 우세한지를 보여 주고, Shannon의 다양도 지수는 종다양성을 수치화한다. 따라서 군집의 종구성과 다양성을 표현하는 지표를 제시한 설명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②는 식생 조사 지표인 녹지자연도를 동물 서식지의 질까지 아우르는 종합 생태평가처럼 바꿔 놓은 것이 함정이다. 식생의 자연성 평가와 서식지 적합성 평가는 초점이 다르므로, 선지에 동물 서식지나 종합 환경질이라는 표현이 붙으면 개념이 바뀌었는지 점검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식생 조사 문항은 먼저 지표가 무엇을 직접 재는지 본다. 녹지자연도는 식생의 자연성과 교란 정도를, 피도는 식물이 덮는 비율을, 다양도 지수는 종구성의 복잡성을 본다. 선지에 원래 지표의 측정 대상을 벗어난 표현이 들어가면 오답일 가능성이 크다.

암기 포인트

녹지자연도는 자연성, 피도는 덮는 비율, Shannon은 다양성이다.

NoteBase

문 8. 환경설계 과정에서 설계자의 주관보다는 이용자의 시각적 선호도가 높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측정되는 시각적 선호(Visual preference)의 계량적 예측모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피터슨(Peterson) 모델
② 쉐이퍼(Shafer) 모델
③ 아버나티(Abernathy) 모델
④ 중정 모델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시각적 선호의 계량적 예측모델에 속하는 이름과 환경설계 일반 이론가의 이름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피터슨 모델은 주거지 주변 등 도시환경의 시각적 선호를 계량적으로 예측하는 대표 모델이다.
쉐이퍼 모델은 자연경관 사진과 물리적 지표를 연결하여 시각적 선호를 예측하는 대표 모델이다.
중정 모델은 중정의 구성요소 또는 도시환경 요소와 시각적 선호의 관계를 분석하는 계량적 예측모델로 분류된다.
아버나티는 환경설계에서 속도, 움직임, 연속적 경험의 중요성과 관련해 언급되는 인물이지 시각적 선호 예측모델의 명칭은 아니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계획 및 설계 · 2019 · 10월

선지별 해설

① X
피터슨 모델은 시각적 선호의 계량적 예측모델에 해당하므로 정답 선택지로는 틀리다.
틀린 표현은 '해당하지 않는 것'에 ①을 넣은 판단이다.
올바르게는 '피터슨 모델은 시각적 선호의 계량적 예측모델에 해당한다'이다.

② X
쉐이퍼 모델도 시각적 선호를 계량적으로 예측하는 대표 모델이므로 정답 선택지로는 틀리다.
틀린 표현은 '해당하지 않는 것'에 ②를 넣은 판단이다.
올바르게는 '쉐이퍼 모델은 시각적 선호의 계량적 예측모델에 해당한다'이다.

③ O
아버나티는 시각적 선호 예측모델명이 아니라 환경설계의 경험, 움직임, 속도 개념과 연결되는 인물명이므로 문제에서 요구한 '해당하지 않는 것'에 맞는다.
즉 아버나티를 피터슨, 쉐이퍼, 중정과 같은 예측모델군으로 묶으면 안 된다.

④ X
중정 모델 역시 시각적 선호의 계량적 예측모델에 포함되므로 정답 선택지로는 틀리다.
틀린 표현은 '해당하지 않는 것'에 ④를 넣은 판단이다.
올바르게는 '중정 모델은 시각적 선호의 계량적 예측모델에 해당한다'이다.

오답 포인트

보기들이 모두 외래어 이름이라서 전부 비슷한 모델명처럼 보이는 점이 함정이다. 특히 ③의 아버나티는 인물명이라는 점을 놓치면 피터슨, 쉐이퍼, 중정과 같은 예측모델로 오인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시각적 선호 문제에서는 먼저 '계량적 예측모델 목록'을 떠올리고, 나머지가 사람 이름인지 이론가 이름인지 구분하면 된다. 피터슨, 쉐이퍼, 중정처럼 조경 시각선호 분석에서 반복적으로 묶이는 이름은 모델군으로 보고, 움직임이나 연속적 경험과 연결되는 이름은 별도 이론가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피터슨·쉐이퍼·중정은 시각선호 예측모델이고, 아버나티는 연속적 경험 관련 인물이다.

NoteBase

문 9. 조경기본계획 중 이용객 추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의 공원, 유원지 등은 기후적 영향에 의해 4계절형이 보통이며 최대일률은 1/60 정도로 본다.

② 적정 이용자수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사회적 수요가 생태적 수용능력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적 수요를, 사회적 수요가 생태적 수용능력을 넘을 경우에는 생태적 수용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③ 피크닉장, 야영장 등 시설물 중심 지역의 최대 동시수용인원은 시설가능지를 1인당 소요면적으로 나누어서 산정한다.

④ 최대 이용자수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입장객수의 일부 제한을 전제로 최대시 이용자수의 일정비율로서 동시 최대수용 규모를 정할 수 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이용객 추정에서 최대일률, 적정 이용자수, 최대 동시수용인원의 산정 기준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최대일률은 연간 이용자수 중 최대일 이용자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계절집중도가 낮을수록 값이 작아진다.
적정 이용자수는 사회적 수요와 생태적 수용능력을 함께 보고 더 작은 쪽에 맞춰 정한다.
최대 동시수용인원은 특정 시점에 물리적으로 수용 가능한 인원으로, 시설가능지를 1인당 소요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선지별 해설

1번: X. 틀린 부분은 "4계절형이 보통이며 최대일률은 1/60 정도"라는 표현이다. 1/60은 계절 집중도가 더 큰 유형에 가까운 값이고, 4계절형은 이용이 연중 분산되므로 최대일률을 더 낮게 본다. 올바르게는 "우리나라의 공원, 유원지 등은 4계절형으로 보며 최대일률은 1/100 정도로 본다"이다.
2번: O. 적정 이용자수는 사회적 수요가 생태적 수용능력 이내이면 사회적 수요를 따르고, 이를 초과하면 생태적 수용능력을 상한으로 잡는다. 결국 두 기준 중 더 작은 값으로 결정한다는 뜻이므로 옳다.
3번: O. 피크닉장, 야영장처럼 시설물 중심 공간은 시설가능 면적을 기준으로 동시 수용인원을 잡는다. 따라서 시설가능지를 1인당 소요면적으로 나누어 최대 동시수용인원을 산정하는 설명은 맞다.
4번: O. 최대시 이용자수가 과도하게 크면 실제 운영에서는 입장객 일부 제한이나 예약제 같은 관리수단을 전제로 동시 최대수용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과밀을 막기 위한 관리적 조정 설명으로 타당하다.

오답 포인트

1번은 "4계절형"이라는 말에만 시선을 두고 뒤의 수치 1/60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틀리기 쉽다. 이 문항의 함정은 계절형 분류와 최대일률 수치를 서로 바꾸어 놓은 데 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이용객 추정 문항은 먼저 사회적 수요와 생태적 수용능력 중 무엇을 비교하는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최대일률이 계절집중도와 연결되는 값인지 본다. 마지막으로 동시수용인원은 면적을 1인당 소요면적으로 나누는 물리적 산정인지 점검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적정 이용자수는 작은 값 기준, 동시수용인원은 면적 나누기, 4계절형일수록 최대일률은 더 작다.

NoteBase

문 10. 적지분석기법(Suitability analysis)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연적인 현상과 환경생태적 요소에 국한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한 기법이다.

②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다양한 후보지역들의 상대적 가치를 비교분석하는 기법이다.

③ 적지분석이라는 용어는 1960년대 이안 맥하그(Ian McHarg)가 사용한 도면중첩에 의한 적지분석도에서 유래한다.

④ 대상 지역의 잠재적 가능성과 위험성을 공간정보로 구현하는 것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적지분석의 개념과 적용 범위를 입지평가의 일반 설명과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적지분석은 특정 토지이용 목적에 맞는 적합성과 제약을 여러 공간요소를 겹쳐 평가하는 방법이다.
평가 요소는 자연·생태 조건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형, 접근성, 토지이용, 사회·경제적 조건, 위험요인까지 포함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1번: X. 틀린 부분은 "자연적인 현상과 환경생태적 요소에 국한하여"이다. 적지분석은 자연환경만 따지는 기법이 아니라 여러 입지 조건을 종합하여 특정 용도에 대한 적합성을 판정하는 방법이다.
2번: O. 적지분석은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해 후보지들의 상대적 적합성과 가치를 비교하는 데 활용되므로 설명이 타당하다.
3번: O. 적지분석이라는 개념은 이안 맥하그의 도면중첩 기법과 연결되며, 1960년대의 생태계획적 접근에서 널리 체계화되었다.
4번: O. 적지분석은 대상지의 잠재적 가능성과 위험성을 공간정보로 표현하고 중첩하여 최적 입지를 찾는 방식이므로 설명이 맞다.

오답 포인트

1번의 함정은 적지분석을 생태분석으로만 축소한 표현이다. 적지분석이 자연환경 자료를 많이 다루더라도 분석 대상은 그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놓치면 오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국한", "오로지", "만"처럼 범위를 지나치게 좁히는 말이 있으면 먼저 의심한다. 적지분석은 여러 공간정보 층을 중첩하여 적합성과 제약을 함께 보는지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적지분석은 자연만 보는 기법이 아니라 여러 입지 조건을 중첩해 적합성과 위험을 함께 평가하는 방법이다.

NoteBase

문 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세분하고 있는 녹지의 종류 중 <보기>에 설명된 녹지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① 연결녹지
② 보전녹지
③ 경관녹지
④ 완충녹지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녹지의 기능별 세분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은 공해·재해 방지 목적의 완충녹지와 경관 향상용 경관녹지, 선형 연결 기능의 연결녹지, 그리고 다른 법 체계의 보전녹지를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완충녹지 =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같은 공해와 각종 사고·자연재해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녹지이다.
보전녹지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녹지지역의 한 종류로서 도시공원법상 녹지 세분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핵심 구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녹지의 세분은 완충녹지·경관녹지·연결녹지이다. 이 중 완충녹지는 공해와 재해의 방지가 목적이고, 경관녹지는 자연환경 보전·개선과 도시경관 향상이 목적이며, 연결녹지는 공원·하천·산지 등을 선형으로 연결하여 산책·여가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전녹지는 이 법의 녹지 세분 명칭이 아니라 국토계획법 체계의 용도지역 명칭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연결녹지는 도시 안의 공원, 하천, 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산책공간 등 여가·휴식을 제공하는 선형 녹지이다. 공해·재해 방지가 핵심 기능이 아니다. 틀린 표현: 연결녹지. 올바른 표현: 보기의 설명은 완충녹지에 해당한다.
② X: 보전녹지는 이 문항의 근거 법률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녹지 세분 명칭이 아니다. 보전녹지지역은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구분이다. 틀린 표현: 보전녹지. 올바른 표현: 공해와 재해 방지 목적의 녹지는 완충녹지이다.
③ X: 경관녹지는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개선하거나 훼손된 자연을 복원·개선하여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녹지이다. 보기처럼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와 재해 방지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경관녹지. 올바른 표현: 보기의 설명은 완충녹지이다.
④ O: 완충녹지는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 공해와 각종 사고·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이므로 보기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이 문제를 틀렸다면 녹지의 기능별 세분과 용도지역 명칭을 섞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②의 보전녹지는 이름이 그럴듯하여 헷갈리지만 도시공원법상 세분이 아니라 국토계획법상 녹지지역 구분이라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나 보기에서 공해 차단, 소음·진동·악취 저감, 사고·재해 방지라는 표현이 보이면 완충녹지를 먼저 떠올린다. 반대로 경관 향상은 경관녹지, 선형 연결과 산책·휴식 제공은 연결녹지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완충은 막는 녹지, 경관은 보는 녹지, 연결은 잇는 녹지이다.

NoteBase

문 1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도시공원의 유형별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소공원은 공원시설 부지면적 30% 이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공원은 규모 1, 500m^2 이상, 공원시설 부지면적 60% 이하여야 한다.

③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은 규모 5, 000m^2 이상, 공원시설 부지면적 50% 이하여야 한다.

④ 문화공원은 규모 30, 000m^2 이상, 공원시설 부지면적 80% 이하여야 한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공원 유형별 최소 규모와 공원시설 부지면적 상한을 정확히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생활권공원과 주제공원의 유형별 기준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다.

용어 풀이

공원시설 부지면적 = 공원 전체 면적 중 공원시설이 차지할 수 있는 면적의 상한을 말한다.
규모 = 해당 공원 유형이 갖추어야 하는 최소 면적 기준을 말한다.

핵심 구분

어린이공원은 규모가 1, 500m^2 이상이고 공원시설 부지면적은 60% 이하이다. 소공원은 공원시설 부지면적이 20% 이하이다.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은 규모가 10, 000m^2 이상이며 근린공원의 공원시설 부지면적은 40% 이하이다. 문화공원은 규모 제한도 없고 공원시설 부지면적도 제한이 없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계획 및 설계 · 2019 · 10월

선지별 해설

① X
소공원의 공원시설 부지면적은 30% 이하가 아니라 20% 이하이다.
틀린 표현: 공원시설 부지면적 30% 이하
올바른 표현: 공원시설 부지면적 20% 이하

② O
어린이공원은 규모 1, 500m^2 이상이고 공원시설 부지면적은 60% 이하이므로 선지의 서술이 맞다.

③ X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은 규모가 5, 000m^2 이상이 아니라 10, 000m^2 이상이다. 또한 근린공원의 공원시설 부지면적은 50% 이하가 아니라 40% 이하이다.
틀린 표현: 규모 5, 000m^2 이상, 공원시설 부지면적 50% 이하
올바른 표현: 규모 10, 000m^2 이상, 공원시설 부지면적 40% 이하

④ X
문화공원은 규모 30, 000m^2 이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공원시설 부지면적 80% 이하라는 상한도 없다.
틀린 표현: 규모 30, 000m^2 이상, 공원시설 부지면적 80% 이하
올바른 표현: 규모 제한 없음, 공원시설 부지면적 제한 없음

오답 포인트

이 문제는 별표 3의 설치 및 규모 기준과 별표 4의 공원시설 부지면적 기준을 섞어 놓은 점이 함정이다. 특히 근린공원을 근린생활권·도보권·도시지역권으로 나누는 규모 기준과, 근린공원 전체에 적용되는 부지면적 40% 기준을 따로 기억하지 않으면 ③에 흔들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원 유형 문제는 먼저 공원의 종류를 생활권공원과 주제공원으로 나눈 다음, 규모 기준은 별표 3에서, 공원시설 부지면적 상한은 별표 4에서 각각 확인하는 방식으로 판단한다. 수치가 둘 이상 제시되면 면적 기준과 비율 기준을 분리해 보면 정답 선지가 빨리 걸러진다.

암기 포인트

소공원 20, 어린이공원 1,500·60, 근린생활권 10,000·40, 문화공원 제한 없음으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1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도시공원 부지 면적이 200만m^2 이상일 것

② 해당 도시공원의 운영 ·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을 것

③ 해당 도시공원의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에는 방문객에 대한 안내 · 교육을 담당하는 1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전담인력이 있을 것

④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도시공원 부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0년 이내에 부지 전체의 소유권 확보를 위한 계획이 있을 것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용어 풀이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시공원을 국가 차원의 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부지, 운영·관리, 공원시설 요건이다.

핵심 구분

부지 요건은 면적 300만㎡ 이상과 부지 전체 소유권 확보를 기준으로 본다. 운영·관리 요건은 조례에 따른 관리, 전담조직 구성, 전문인력을 포함한 8명 이상의 전담인력 확보를 기준으로 본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계획 및 설계 · 2019 · 10월

선지별 해설

1번 X: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의 부지 면적 기준은 200만㎡가 아니라 300만㎡ 이상이다.
틀린 표현: 도시공원 부지 면적이 200만㎡ 이상일 것
올바른 표현: 도시공원 부지 면적이 300만㎡ 이상일 것

2번 O: 해당 도시공원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을 것은 운영 및 관리 요건에 해당한다.

3번 X: 전담조직에는 안내·교육 담당 전문인력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는 점은 맞지만, 총 전담인력 기준이 5명이 아니라 8명 이상이다.
틀린 표현: 5명 이상의 전담인력이 있을 것
올바른 표현: 8명 이상의 전담인력이 있을 것

4번 X: 부지 전체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경우도 10년 이내 계획이 아니라 5년 이내 계획이어야 한다.
틀린 표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0년 이내에 부지 전체의 소유권 확보를 위한 계획이 있을 것
올바른 표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5년 이내에 부지 전체의 소유권 확보를 위한 계획이 반영되어 있을 것

오답 포인트

숫자 기준을 흐리게 외우면 틀리기 쉽다. 이 문항은 200만㎡와 300만㎡, 5명과 8명, 10년과 5년을 바꿔 넣어 수치를 헷갈리게 만든 문제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법령형 숫자 선지는 먼저 면적, 인원, 기간 같은 정량 기준을 확인한 뒤 조례, 전담조직, 직접 관리처럼 운영 방식 요건을 분리해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국가도시공원은 300만㎡, 전담인력 8명 이상, 소유권 확보 계획은 5년, 운영·관리는 조례이다.

NoteBase

문 14. 「조경기준(국토교통부고시)」의 대지안의 식재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경면적은 식재된 부분의 면적과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② 식재면적은 조경의무면적(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조경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③ 하나의 식재면적은 한 변의 길이가 1미터 이상으로서 1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④ 하나의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조경기준」의 대지안의 식재기준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조경면적의 산정 방식과 식재면적·조경시설공간의 최소 기준을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조경면적 = 식재된 부분의 면적과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다.
식재면적 = 수목이나 잔디·초화류 등을 기준에 맞게 심은 부분의 면적이다.
조경시설공간 = 조경시설을 설치한 일정 면적 이상의 공간이다.

핵심 구분

「조경기준」 제4조는 조경면적을 식재면적과 조경시설공간을 합하여 산정한다. 같은 조 제1호는 식재면적을 조경의무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하고, 제2호는 하나의 식재면적을 한 변 1미터 이상이면서 1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하며, 제3호는 하나의 조경시설공간을 10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조경면적은 식재된 부분의 면적과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한다는 제4조 본문과 일치한다.

② X
식재면적 비율을 잘못 적은 선지이다. 틀린 표현은 "100분의 70 이상"이다. 올바르게는 조경의무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③ O
하나의 식재면적은 한 변의 길이가 1미터 이상이면서 1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는 제4조제2호의 내용과 같다.

④ O
하나의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므로 제4조제3호와 일치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는 수치를 바꾸어 놓은 전형적인 함정이다. 식재면적 비율은 70퍼센트처럼 크게 외우기 쉽지만, 이 기준에서는 50퍼센트가 맞다. 또한 ①처럼 조경면적을 식재면적으로만 보지 않고 조경시설공간까지 포함한다는 점도 함께 묻고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경기준 수치 문제는 먼저 조경면적의 구성요소를 본다. 그다음 식재면적 비율, 하나의 식재면적 최소 규모, 하나의 조경시설공간 최소 면적 순서로 숫자를 대조하면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조경면적은 식재+시설공간, 식재면적은 50퍼센트 이상, 한 식재면적은 1미터·1제곱미터 이상, 한 시설공간은 10제곱미터 이상이다.

NoteBase

문 15. 「도시공원 · 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상 도시공원의 일반적 설치기준 중 입지여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린공원 유치권내 공원시설이 없고 인구 밀집 지역으로서 조성효과가 높은 지역은 최적합지에 속한다.

② 세 도로에 접하고 차량출입이 가능한 토지는 준적합지에 속한다.

③ 급경사지나 절개지 등으로 공원조성이 불가능한 토지는 부적합지에 속한다.

④ 지장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타용도로 이미 점유되어 있는 토지는 준적합지에 속한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상 도시공원 입지여건을 최적합지·준적합지·부적합지로 구분하는 기준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접근성과 조성효과가 높은 토지인지, 아니면 공원조성이 곤란한 토지인지를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최적합지 = 접근성과 조성효과가 높아 우선적으로 공원 조성에 적합한 토지이다.
준적합지 = 공원 조성은 가능하지만 조성효과나 주변 여건이 최적합지보다는 떨어지는 토지이다.
부적합지 = 지장물, 타용도 점유, 급경사지 등으로 공원 조성이 곤란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다.

핵심 구분

원칙적으로 최적합지는 인구밀집지역, 공원시설 공백지역, 나대지 등처럼 공원 조성효과가 큰 토지이다.
준적합지는 세 도로에 접하고 차량출입이 가능한 토지처럼 접근 여건은 갖추었으나 최적합지까지는 아닌 토지이다.
반면 부적합지는 지장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타용도로 이미 점유된 토지, 급경사지나 절개지처럼 공원 조성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토지이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계획 및 설계 · 2019 · 10월

선지별 해설

① O
근린공원 유치권 내에 공원시설이 없고 인구 밀집 지역으로서 조성효과가 높은 지역은 최적합지에 해당한다. 공원 수요가 크고 시설 공백을 메우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② O
세 도로에 접하고 차량출입이 가능한 토지는 준적합지에 해당한다. 접근성은 좋지만, 그 자체만으로 인구밀집지역의 공원 공백을 해소하는 최적합지로 보지는 않는다.

③ O
급경사지나 절개지 등으로 공원조성이 불가능한 토지는 부적합지에 해당한다. 물리적으로 공원시설 설치와 이용이 곤란하므로 적합지로 볼 수 없다.

④ X
지장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타용도로 이미 점유되어 있는 토지는 준적합지가 아니라 부적합지이다. 이미 다른 용도로 점유되었거나 장애요인이 있는 토지는 공원 조성이 곤란하므로 부적합지로 분류한다.
틀린 표현: 준적합지에 속한다.
올바른 표현: 부적합지에 속한다.

오답 포인트

④는 '공원조성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만 부적합지'라고 좁게 생각하면 잘못 고르기 쉽다. 이 지침에서는 급경사지·절개지뿐 아니라 지장물 설치, 타용도 점유처럼 공원 조성을 현실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토지도 부적합지로 본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입지여건 문제는 먼저 발문이 '옳지 않은 것'인지 확인한 뒤, 각 토지를 조성효과가 큰 땅인지, 접근은 되지만 효율이 떨어지는 땅인지, 아예 조성이 곤란한 땅인지로 나누어 판단하면 된다. 지장물 설치, 타용도 점유, 급경사지, 절개지가 보이면 부적합지로 연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인구밀집·공원공백은 최적합지, 세 도로 접면은 준적합지, 지장물·타용도 점유·급경사는 부적합지이다.

NoteBase

문 1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공원시설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경시설'은 잔디밭, 그늘시렁 및 폭포 등을 포함한다.

② '교양시설'은 식물원, 동물원, 박물관, 야외음악당을 포함한다.

③ '운동시설'은 실외사격장과 6홀 이하의 골프장을 포함한다.

④ '편익시설'은 시계탑, 제과점, 사진관을 포함한다.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도시공원 공원시설의 법정 분류와 시행규칙상 세부 예시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교양시설·조경시설·편익시설의 예시와 운동시설의 제한 문구를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공원시설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다.

핵심 구분

법률은 공원시설을 조경시설·휴양시설·유희시설·운동시설·교양시설·편익시설 등으로 나누고 대표 예시를 든다. 시행규칙은 각 유형의 구체적 시설을 더 세분한다. 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운동종목 시설을 원칙으로 하되, 무도학원·무도장·자동차경주장은 제외하고 사격장은 실내사격장에 한하며 골프장은 6홀 이하의 규모에 한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시행규칙상 조경시설에는 잔디밭, 그늘시렁, 못 및 폭포 등이 포함된다. 제시 문구는 조경시설의 예시와 맞다.

② O: 법률상 공원시설의 교양시설 예시에는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야외음악당 등이 포함된다. 제시 문구는 그중 일부를 옮긴 것으로 맞다.

③ X: 시행규칙상 운동시설은 사격장을 둘 수 있으나 실외사격장이 아니라 실내사격장에 한한다. 골프장은 6홀 이하의 규모에 한하는 점은 맞지만, 사격장 부분이 틀려 전체 문장이 틀리다. 틀린 표현은 "실외사격장"이다. 올바른 표현은 "실내사격장과 6홀 이하의 골프장"이다.

④ O: 시행규칙상 편익시설에는 시계탑, 제과점, 사진관 등이 포함된다. 제시 문구는 편익시설의 예시와 맞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은 사격장이 허용된다는 사실만 기억하면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출제 포인트는 실외와 실내의 구별이다. ②는 시행규칙의 세부 목록만 떠올리면 흔들리기 쉽지만, 발문이 법률 및 시행규칙을 함께 묻고 있으므로 법률상의 교양시설 예시까지 함께 봐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발문에 법률과 시행규칙이 함께 제시되면 먼저 법률의 큰 분류 예시인지, 시행규칙의 세부 시설인지 나누어 본다. 운동시설 선지는 허용 여부만 보지 말고 예외와 제한 문구까지 확인하면 판단이 빨라진다.

암기 포인트

교양시설은 법률의 대표 예시를, 운동시설은 시행규칙의 제한 문구를 묻는 경우가 많으며 사격장은 실내만 가능하다.

NoteBase

문 1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과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원녹지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②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③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이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④ 10만m^2 이하 규모의 도시공원을 새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정비 주기, 상위계획과의 관계, 수립 예외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공원녹지기본계획 = 관할 도시지역의 공원녹지 확충·관리·이용 방향을 10년 단위로 제시하는 기본계획이다.
도시·군기본계획 = 도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정하는 상위 기본계획이다.

핵심 구분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두 계획의 내용이 다르면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또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원칙적으로 수립하여야 하지만,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1번: O.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10년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 주기를 묻는 선지로서 맞는 표현이다.
2번: O. 수립권자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10년은 수립 주기이고 5년은 정비 주기라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3번: X.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두 계획의 내용이 다르면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틀린 표현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이다. 올바르게는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이다.
4번: O. 법은 10만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도시공원을 새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예외 규정을 그대로 묻는 선지이므로 맞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3번처럼 '부합되어야 한다'는 문장 뒤에 누구의 계획이 우선하는지를 뒤바꾸는 방식이 대표적 함정이다. 1번과 2번도 10년 수립과 5년 정비를 바꾸어 놓으면 쉽게 흔들린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본계획형 법령문제는 주기, 주체, 상하계획 관계, 예외사유를 먼저 분리해 읽으면 된다. 특히 '부합'은 하위계획의 의무이고, '우선'은 상위계획에 돌아간다는 구조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공원녹지기본계획은 10년 수립, 5년 정비, 상위는 도시·군기본계획, 예외는 10만제곱미터 이하 신설공원이다.

NoteBase

문 1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과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집중강우로 인하여 급증하는 제내지 및 저지대의 배수량을 조절하고 이를 하천에 방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을 저류시설이라 한다.

② 저류시설은 주변지형, 지질 및 수리·수문학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과 방재시설로서의 기능을 모두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입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가급적 자연유하(自然流下)가 가능한 곳에 입지하도록 한다.

③ 하나의 저류시설부지 안에 설치하여야 하는 녹지의 면적은 해당저류시설부지에 대하여 상시저류시설은 60퍼센트 이상, 일시저류시설은 4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지상부 등 공원시설물의 유지관리는 공원관리자가 하고, 저류시설의 안전관리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는 방재책임자가 담당한다.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저류시설의 정의와 설치·관리기준을 정확히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저류시설과 유수시설의 정의를 혼동하지 않고, 상시저류시설·일시저류시설의 면적기준과 관리주체를 구별하는 데 있다.

용어 풀이

저류시설은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 두었다가 바깥 수위가 낮아진 후 방류하기 위한 시설이다.
유수시설은 집중강우로 급증한 제내지 및 저지대의 배수량을 조절하여 하천에 방류하기 위해 일시 저장하는 시설이다.

핵심 구분

시행규칙 별표 6은 저류시설을 유입시설, 저류지, 방류시설 등 일체의 시설로 본다.
반면 제내지·저지대의 배수량을 조절하여 하천에 방류하기 위해 일시 저장하는 시설이라는 표현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상 유수시설의 정의이다.
또한 상시저류시설은 녹지면적 60퍼센트 이상, 일시저류시설은 40퍼센트 이상이라는 비율기준과 지상부 공원시설물은 공원관리자, 저류시설의 안전관리 등은 방재책임자라는 관리주체 구분이 함께 출제되었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계획 및 설계 · 2019 · 10월

선지별 해설

① X
- 선지의 문구는 저류시설이 아니라 유수시설의 정의이다. 시행규칙의 저류시설은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 두었다가 바깥 수위가 낮아진 후 방류하기 위한 시설로 본다.
- 틀린 표현: "집중강우로 인하여 급증하는 제내지 및 저지대의 배수량을 조절하고 이를 하천에 방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을 저류시설이라 한다."
- 올바른 표현: "집중강우로 인하여 급증하는 제내지 및 저지대의 배수량을 조절하고 이를 하천에 방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은 유수시설이며, 저류시설은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 두었다가 바깥 수위가 낮아진 후 방류하기 위한 시설이다."

② O
- 시행규칙 별표 6은 저류시설이 주변지형, 지질 및 수리·수문학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공원 기능과 방재시설 기능을 모두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입지하여야 하며, 가급적 자연유하가 가능한 곳에 입지하도록 한다고 정한다.

③ O
- 시행규칙 별표 6은 하나의 저류시설부지 안에 설치하여야 하는 녹지의 면적을 상시저류시설은 해당 부지의 60퍼센트 이상, 일시저류시설은 40퍼센트 이상으로 정한다. 선지의 수치가 기준과 일치한다.

④ O
- 시행규칙 별표 6은 지상부 등 공원시설물의 유지관리는 공원관리자가 하고, 저류시설의 안전관리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는 방재책임자가 담당한다고 정한다. 선지는 관리주체를 정확히 적었다.

오답 포인트

①은 문장 구조가 매우 그럴듯하여 저류시설의 정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수시설의 정의를 가져와 주체만 바꿔 놓은 함정이다. 저류시설은 "빗물을 모아 두었다가 바깥 수위가 낮아진 후 방류"이고, 유수시설은 "제내지·저지대의 배수량 조절"이라는 키워드로 구분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법령형 시설문제는 먼저 정의문을 본다. 문장에 "제내지·저지대의 배수량 조절"이 나오면 유수시설 쪽이고, "빗물을 모아 두었다가 바깥 수위가 낮아진 후 방류"가 나오면 저류시설 쪽이다. 그 다음 면적비율과 관리주체처럼 숫자와 담당자를 묻는 기준문을 대조하면 정답을 빠르게 가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유수시설은 배수량 조절, 저류시설은 빗물 저류 후 저수위 방류이다.

NoteBase

문 19. 「건축법」 제43조에 따라 공개 공지를 설치해야 하는 곳은?

① 제2종전용주거지역

② 일반주거지역

③ 전용공업지역

④ 생산녹지지역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공개공지등 설치대상 지역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공개공지등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대지에 확보하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다.

핵심 구분

공개공지등 설치대상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그리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공고하는 지역이다. 전용주거지역,
전용공업지역, 생산녹지지역은 조문에 직접 열거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1번(X): 제2종전용주거지역은 「건축법」 제43조의 열거 대상이 아니다. 법은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을 규정한다.
틀린 표현: 제2종전용주거지역
올바른 표현: 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2번(O): 일반주거지역은 「건축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공개공지등 설치대상 지역이므로 옳다.
3번(X): 공업지역이라고 해서 모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법은 준공업지역만 규정한다.
틀린 표현: 전용공업지역
올바른 표현: 준공업지역
4번(X): 생산녹지지역은 조문상 공개공지등 설치대상 지역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틀린 표현: 생산녹지지역
올바른 표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 가능성이나 노후 산업단지 정비 필요성을 이유로 지정·공고하는 지역

NoteBase

오답 포인트

이 문제의 함정은 용도지역 명칭이 비슷하다는 점이다. 일반주거지역과 전용주거지역, 준공업지역과 전용공업지역을 섞으면 오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역 열거형 법령문제는 조문에 적힌 명칭을 그대로 대조하는 방식으로 푼다. 특히 '전용'과 '준', '일반'처럼 접두어가 바뀌는지를 먼저 확인하면 빠르게 걸러진다.

암기 포인트

공개공지등 대상 지역은 일반주거·준주거·상업·준공업과 지정·공고 지역이다.

NoteBase

문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大修繕)

②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③ 기존 공작물의 증축

④ 산림의 솎아베기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와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용어 풀이

대수선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큰 규모의 수리이다. 솎아베기는 산림의 밀도를 조절하기 위해 일부 나무를 골라 베는 행위이다.

핵심 구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법 제27조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 기존 공작물의 증축, 건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은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반면 산림의 솎아베기는 같은 조 제2항과 시행령상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여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1번: X.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이다.
틀린 표현: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올바른 표현: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은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
2번: X.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허가 대상이다.
틀린 표현: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올바른 표현: "건축물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
3번: X. 기존 공작물의 증축도 허가 없이 가능한 경미한 행위가 아니라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이다.
틀린 표현: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올바른 표현: "기존 공작물의 증축은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
4번: O. 산림의 솎아베기는 시행령이 정한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대수선, 증축, 형질변경은 모두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 가능한 행위인데, 이를 허가 없이 가능한 경미한 행위와 섞어 놓은 점이 함정이다. 허가 필요와 허가 불요의 구분을 놓치면 1번부터 3번까지도 맞아 보이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도시자연공원구역 문제는 먼저 원칙이 행위 제한이라는 점을 잡고, 다음에 선지가 허가를 받아 가능한 예외인지, 아예 허가 없이 가능한 경미한 행위인지 순서대로 나누어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원칙 금지, 대수선·증축·형질변경은 허가, 솎아베기는 무허가 가능이다.

NoteBase